

교회(그리스도인) - 구원의 보편성사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열렸던 1962년, 세계의 주교들(교부들)은 교회에 관한 교의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로마에 모였다. 이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성찰하였던 주교들은 교회헌장 첫 항에서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성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설명을 하고자 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 표징이며 도구이다”(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1항).

교회는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향해 내어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교회는 세상 안에서 구원의 도구(표징,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주교들이 동의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교회의 특성은 다른 아닌 ‘성사’(聖事, 세상 구원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세상 안에서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의 본래적 의미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교회를 두고 바로 성사라고 정의하기에는 큰 걸림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의 표징들이라는 전통적인 이해 때문이었다. 일부 주교들은 성사는 일반적으로 7성사로 이해되므로, 교회를 성사라고 말한다면 교회가 8번째 성사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열띤 토론과 논쟁, 신학적, 교회론적 분석이 이어졌다. 결국,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은 교회를 ‘성사와 같다(velut i sacramentum)’라고 표현하는 것에 전체적인 동의를 하게 되었다(찬성 2180, 반대 10). 그러나 공의회 교부들은 회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리고 교회의 본성을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교회는 성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다. 교부들은 결국 교회헌장 48항에서 교회는 구원의 보편 성사라고 단언하게 된다. 해결의 핵심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다. ‘구원’과

보편’. 즉, 교회 안의 7성사와 구별되는 것으로 교회는 그 자체로 보편 성사이며, 7성사가 주로 하느님의 은총과 관련한 것이라면,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도구라는 측면에서 구원의 성사라고 가르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구원의 보편 성사라면, 우리 각자는 세상 안에서 구원의 성사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사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성사적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이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표지가 되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삶, 내어준의 삶, 겸손의 삶을 통해 내가 받은 사랑과 은총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1티모 4, 12-13.16). [2015년 5월10일 청주주보, 김대섭 바오로 신부(복음화 연구소장)]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레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염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중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타(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욱 세레나/(건강)/브랜든 존스톤 (키모)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구베드로, 벨리사벳 정진천, 김성진의 영복을 기도드립니다	구 요한, 비아	생	기은희 마리아 이서향 미카엘라 생일감사	소화 데레사
연			생		
연			생		

자	전 려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7월21일(화)	연중 제16주간 화요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1,825.00 \$ 1,157.00
7월22일(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일	오전 7 : 30	교구 원 캠페인 토요일 특전	\$ 1,750.00 \$ 42.00
7월23일(목)	연중 제16주간 목요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112.00 \$ 115.00
7월24일(금)	연중 제16주간 금요일	오후 7: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	\$ - \$ -
7월25일(토)	성 야고보 사도 축일	오후 7 : 30	성당발전기금 합 계	\$ - \$ 5,001.00
7월26일(일)	연중 제17주일	오전 9 : 00 오전 11: 00	미사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4~6 서량 조영진 5~6월 이민석 5~7월 류승교 5~8월 박판기 국부자 6월 김초지 이원건 안기창 6~7월 이상록 7월 김광희 구준모 한은년 엄정식 이상일 김영숙 7~8월 김용욱 최준규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매주 화요일 저녁8시)
- ◆ 문 의: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세례예식

- ◆ 8월 16일(일) 교중미사 중
- ◆ 화요일 교리반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신자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세요.

3. 봉성체(병자 영성체)신청

- ◆ 주-신부님/ 셋째 주 -부제님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4.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

- ◆ 7 30일(목) 시작됩니다. 예비신자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5. 성시간 및 성령찬미미사

- ◆ 7월 31일(금) 저녁 7시 30분
- ◆ 매월 성시간을 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6. 성모 성심 미사

- ◆ 8월 1일 (토) 10시 30분
- ◆ 미사후에 만나회 요셉회 있습니다.

7. 북가주 6개 한인 성당 청소년 하계 캠프 안내

- ◆ 날짜 :8월 7일 -9일 (2박 3일)
- ◆ 대상 : 중,고등학생 (2015년 9월 기준 7학년-12학년)
- ◆ 참가비 :\$170(T-셔츠+식사 5끼 포함)
- ◆ 장소 :Koinonia Camp Ground , Watsonville, CA
- ◆ 참가 인원 파악 및 준비를 위해 온라인 접수 신청 필수 camp2015.sjkoreancathloicsundayschool.org (산호세한국순교자 성당) 또는 SACPACK+HS FaceBook 확인

8.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서 작성자는 총 84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250), 구요한(\$1500)	\$38,445.00

9. 감사합니다

- ◆ 이번주 점심봉사 : 사회복지부 보 조 :이호순 수산나(\$200)
- ◆ 다음주 점심봉사 : 5구역 보 조: 김 수산나
- ◆ 만나회에서 성작을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 ◆ 제대 꽃 봉헌 : 전 율리안나

성전 건립기금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	\$60,787.21

성전건립을 위한 묵주기도 30만단 봉헌

지난주 묵주기도 봉헌	총 누 계
5155	238,599

지구 & 교구소식

꼬미시움 회합 19일(일)- 1시 성당 엘리사벳 방
쁘레시디움 간부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모임안내

- 모임 : 7월 19일(일) 미사 후
- 리노 공소 : 19일(일) 오후 2시 반 출발 차량으로 봉사 하실 분
- 사목회 : 26일(일) 엘리사벳 방
- 연령회 모임 : 26일(일) 교중 미사후 1시 성 마태오방
- ◆ 점심 제공 -새 연령회원 환영 합니다
- 소화데레사 모임 : 19일(일) 11시 미사 후 마태오방

주일 /한글학교

- 주일학교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석하도록 합시다
- ◆ 문의:이시래 베타타(919)749-0632/장선영 스킨라스티카367-3363

전례 봉사	07월 19일	07월 26일	08월 2일	08월 9일
해 설	임상일 (프란치스코)	김은영 (폴 리 나)	이혜련 (데 레 사)	김은선 (제노베파)
1 독 서	장수영 (스테파노)	안기창(프란치스코)	윤재경 (알베르토)	김형일 (안드레아)
2 독 서	허애경 (안 나)	최금주 (요안나)	윤은실 (비비안나)	오한빛 (수산나)
복 사	윤성훈 (가브리엘) 송돈희 (요 셉)	양경민 (안드레아) 류승교 (바오로)	김재열 (스테파노) 이대원 (베드로)	김민규(다미아노) 윤여훈 (로마노)
/기도/청소	9EG~10DW	9EG~10DW	1FE~2F0	1FE~2F0
헌금 위원	송돈희 임상일	고공자 임그라시아	전비아, 김미해	이나숙, 정의주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신세계 여행사 80 Grand Ave. #202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7495</p>	<p>한국위성방송 한국방송(MBC, MBC Everyone, 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 CBS Badoo) + 미국방송(Direc TV) "무료설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FARMERS 배 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4</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부동산 · 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 파산법 전문 (, 사업빚,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Exigo ITSolutions 컴퓨터 수리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support@exigoits.com 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일날 성당에서 보아드립니다 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le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 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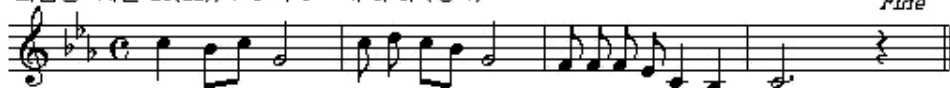
주임신부: 최승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예레미아 23:1-6 제 2 독서 에페소서 2:13-18 복 음 마르코 6:30-34

화답송: 시편 23(22), 1-3, 3L-4, 5, 6, (◎ 1)

화답송



목자 없는 양들을 어이할꼬!

교우님들!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제일 큰 몫을 하고 계시는 농민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두 달 이상을 끌어 온 메르스와 전쟁을 치르라, 마른 논과 밭에 물대머 대처로 나간 자식들 걱정하라 잠시도 바람 잘 날 없는 인생길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타는 가뭄은 막 시작된 장마가 몰고 올 단비가 적당히 내려 해갈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메르스도 사그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더디 가고, 덜 먹고, 덜 입더라도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예언자 아모스의 선포를 전해 들었습니다.(아모 7,12-15) 한편 복음을 통해서서는 율법의 허구성과 낡은 질서를 타파하기 위해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전대도 심지어 여벌옷도 지니지 않도록 당부하며 제자들을 파견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마르 6,7-13) 딱딱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면서도 옛 사람들처럼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그날의 약속과 선포가 이루어지리라 믿으니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연중 제16주일인 오늘은 제1독서를 통해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할 양떼(백성)를 오히려 흠어 버리고 몰아냈으며, 보살피지 않는 거짓 목자(임금)를 벌하시겠다는 분노 어린 하느님의 경고를 듣습니다.(예레 23,1-2) 또 지배층을 두둔하고 그들의 편에 치우쳐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들은 벌하시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 부르게 될 것” 이라고 약속(예레 23,5-6)하시니 위안을 얻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허구 가득한 율법과 낡은 질서에 맞서도록 파견 했던 제자들을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르 6,31)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뒤따르던 군중들을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여기시고 가여워 (마르 6,34) 하십니다. 옛 사람들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정의를 이루실 하느님을 체험했고 제자들을 통해서는 연민 가득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놓인 세상은 비뚤어진 권력과 자본의 무한 욕망이 다투어 춤을 추는 우상들의 놀이터인 듯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깊은 바다 속에 수장되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들을 조롱합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굴뚝과 광고탑 그리고 길 위에서 하소연하는 이들의 처지가 눈물겹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걸치레뿐인 말이나 보상심리에서가 아니라 빵이나 여벌옷도 지니지 않는 비장함으로 제자 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무관심이 주는 달콤함이나 자기만족에 갇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삶에서 벗어나 연민과 공감, 위로와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전해줍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고 농민 형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 연민을 가득 담아 주셨으니 기쁘고 뚝뚝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곳곳의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신기동 본당 김영식 요셉 신부

광 야

중달이 날면서
하늘에 구멍 내
천상의 바람
노래로 내려오네

유경환 클레멘스 · 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 · 화가



장 종 지
